



무관중으로 경주가 열리고 있는 레이스 트랙을 질주하고 있는 경주마들. 한국마사회는 4분기 경마 운영 계획에서 향후 경마 정상화를 대비해 경주마들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가을 예정이던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올해도 멈춘 코리아컵·코리아스프린트

주요 대상경주 총 18경기 개최 예정 챔피언십 정상 개최...최고마 뽑아

어느새 2021년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21년도 차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방역이 전환되면서 맞을 경마의 정상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 올 4분기 시행할 경마 계획을 발표했다.

●경마 시행규모 탄력 운영

우선 매년 가을 열렸던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는 아쉽게도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는 2019년 국제 PART I GIII 경주로 승격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블루복(전 세계 경마시행국가·경주를 총괄 분류하는 책자)에 공식 등재됐다. 2013년 한일전을 시작으로 다국가 참여 국제경

주로 발돋움하던 코리아컵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리지 못하게 됐다.

마사회는 경주 수출 활성화로 위기 극복 활로 모색에 집중하고 있다. 경주 수출의 매출과 수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주(미국, 캐나다) 지역과 경주수출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남아공 등 신규 국가 수출 추진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기존 수출국과의 협업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주 실태조사 정보 조정, 그래픽 디자인 개편 등 콘텐츠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맞춰 올해 경주의 정상화를 대비해 4분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경마 시행규모를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방역 안전을 담보하는 최적의 규모로 경주를 편성해 월별 경주규모에 차등을 두었다. 고객 입장이 20% 미만이면 서울은 1주당 18경주, 부산과 제주는 12경주를 운영하고 20

% 이상이면 주당 2경주씩 늘린다.

●대상경주도 18경기 편성

또한 말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국내 경주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대상경주 총 18경기(서울 11R, 부경 7R)를 개최한다. 국산 3세마 최강을 가리는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의 'KRA컵 마일'(GII, 1600m, 총상금 4억5000만 원), '코리아더비'(GI, 1800m, 총상금 6억50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GII, 2,000m, 총상금 4억5000만 원)를 비롯해 트리플 티아라(국산 3세 최우수마), 쉐바나일(국산 2세 최우수마) 시리즈도 시행된다. 마주 복색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마주 복색 등록 마주가 소유한 말은 대상경주 편성에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국내 최고의 경주마를 뽑는 2021년 챔피언십도 시행한다. 3위 안에 입상한 말이 차년도 두바이월드컵카니발(DWCC) 원정 등록과 출국수송을 완료할 경우 추

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우수마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상금 운영기준도 고객 입장 재개에 대비해 기존 체제로 재편된다. 일반경주 등급별 순위상금 규모와 순위별 배분비가 조정되며 상생경마 기간에 한정 운영했던 출전료를 폐지하고 출전장려금 지급 대상도 정상 경마 시행 때처럼 9월까지 지급된다.

조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경주 입상마의 실제 조교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도 서울 경마장에 한정해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경마 정상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정부 기준에 맞춰 시행해 안전한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4분기 경마 운영계획은 10월 1일 금요일 경주부터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고객 수용규모와 경마 시행 형태가 조정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WP 개선 캠페인 목은 관행들 바로 잡는다

한국마사회는 3일 성과점검회의를 열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WP(Worst Practice) 개선 캠페인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WP란 과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업무 추진 방식, 받치된 업무, 예산과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업무를 가리킨다.

마사회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마 시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기존에 시행해 온 BP(Best Practice) 추진이 아닌 WP 개선으로 전환해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기로 했다.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ESG경영, 업무혁신, 경영위기극복을 목표로 기존 업무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사회는 WP 개선과제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해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철희 회장직무대행은 "위기일수록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조직 내 작은 업무의 변화가 모여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2021 말산업박람회 11일까지 온라인 개최

한국마사회는 2021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연계한 온라인 말산업박람회를 1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통해 방문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체험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카드뉴스로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 말산업의 역사와 현황을 알기 쉽게 소개하며 승마지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말산업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승마에 입문한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 온라인 승마체험을 통해 승마 기초이론과 말 고르기, 장구 채우기 등을 단계별로 배울 수 있다.

마사회 온택트 방식 통한 '청렴 릴레이' 시행

한국마사회는 8월 중순부터 '청렴 릴레이'를 실시 중이다. 임직원들이 청렴에 관한 생각을 짧은 메시지로 정리해 공유하고 전파하는 방식이다. 청렴 메시지 작성과 전파 대상은 상임임원, 지역본부장, 본부별 주무 실·처장이며 전 직원이 이용하는 포털을 통해 청렴한 복무 자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온택트 방식으로 평소 생각을 올리고 있다.

말산업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마사회는 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한국마사회 말산업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두근두근 나의 말 이상형'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은 '데이터 기반의 승마 자격 검증' 아이디어가 받았다. 최우수상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한국마사회 상장이 수여됐다.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 사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교육 중인 공공데이터 일 경험 수련생의 과제에 대한 평가 및 포상도 실시했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8일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발매 촉구 결의문을 발표한 뒤 삭발을 하고 있는 마사회 노조의 홍기복 위원장.

"온라인 발매 입법만이 살길"...마사회 노조 삭발 항의 농식품부 반대에 국회 계류

한국마사회 노조가 말산업 붕괴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삭발식까지 단행하는 단행행동에 나섰다.

마사회 노조는 8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경마 온라인 발매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마사회 노조가 속한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의 연대발언으로 시작해 마사회 노조의 투쟁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홍기복 노조 위원장의 삭발식이 진행됐다. 삭발식을 하는 동안 현장에 함께 한 40여 명의 마사회 노조원과 관계자들은 "방역지침 준수 때문에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지만, 말산업계 종사자 모두가 온라인발매 입법 촉구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마사회 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 "한때 연간 3조3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농업생산액의 7%를 담당했던 말산업이 코로나19 확산과 경마 중복규제로 붕괴 직전에 몰렸고 2만4000 종사자의 고용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발매의 도입만이 말산업을 회생시키는 유일한 대안임에도 입법화에 반대 의견을 고수하는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마사회 노조는 7월 7일부터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촉구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8월 말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진

행했고, 8월 30일부터 세종정부청사로 옮겨 왔다. 현재 경마의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4명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개정안이 작년 상정되어 올해 2월과 6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반대에 부딪쳐 계류 중이다.

반면 경륜·경정은 5월 온라인 발매를 허용한 경륜경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온라인으로 발매를 하고 있다. 복권과 스포츠도토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8월부터 온라인발매를 시작한 경륜과 경정까지 포함하면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만 온라인 발매를 못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골프

김효주,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R 3언더파 공동 선두

장하나·최예림·서연정도 3언더파 활약 박인비 3오버파·전인지는 1오버파 부진

올해 국내 무대에 첫 출전한 해외파 세 명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다.

'디펜딩 챔피언' 김효주(26)는 9일 경기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1시즌 4번째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챔피언십'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타를 줄이고 장하나(29), 최예림(22), 서연정(26)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랐다.

전반에 버디만 4개를 낚은 김효주는 10번, 14번(이상 파4) 홀에서 각각 보기로 주춤했지만 16번(파3) 홀에서 8.5m 버디 퍼트를 홀컵에 떨어뜨려 3언더파를 완성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도쿄올림



김효주

픽 출전 이후 국내에서 휴식을 취한 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이 대회를 통해 모처럼 국내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 김효주는 작년보다 더 '탄탄해진 몸'으로 안정감있는 플레이를 펼쳤다. "일부러 몸을 키웠다"고 소개한 그는 "왼쪽 옆구리에 담이 걸릴 정도로 (웨이트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오랜만에 국내 선수들과 즐기면서 플레이했다"고 밝혔다. 반면 후원사 KB금융그룹 주최 대회에 초청선수 자격으로 나선 또 다른 해외파 박인비(33)와 전인지(27)는 각각 3오버파, 1오버파에 그쳤다.

이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이태훈,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 7언더파 '굿 스타트'

이글1·버디6·보기1...4년만에 타이틀 탈환 도전

2017년 신한동해오픈 우승자 이태훈(30·캐나다)이 4년만의 타이틀 탈환을 위해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태훈은 9일 인천 배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제37회 신한동해오픈'(총상금 14억 원) 1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1개를 묶어 7언더파 64타를 쳐 선두권에 자리했다.

477m 파5 2번 홀의 이글 장면이 이번 라운드의 하이라이트였다. 드라이버로 268m를 보낸 뒤 220m 남은 상태에서 친 세컨 샷을 홀컵 2m 옆에 붙여 단숨에 2타를 줄였다.

이태훈은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한 뒤 이듬해 코리아투어에 데뷔해 2019년 제15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에서 챔피언에 오르는 등 코리아투어 통산 2승을 기록하고 있다. 이태훈은 "2017년(신한동해오픈) 우승했을 때 좋



이태훈

은 기억이 있어 버디도 많이 나오고 퍼팅감도 괜찮았다. 그래서 이글도 만들 수 있었다. 첫날 일정을 잘 마무리한 것 같다"고 만족감을 내비쳤다.

지난해도 4라운드에서만 5언더파를 몰아치며 2위에 오르는 등 신한동해오픈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는 "작년엔 러프가 많이 길고 좁았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러프가 짧아 스코어가 잘 나오는 것 같다"며 "우승 스코어를 예상한다면 20언더파 가까이 갈 것 같다"고 내다본 뒤 남은 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도현 기자